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제조업 일자리 작년엔 8만7천개 사라져

[미국 금융]

- CNNBusiness: 연방 국세청, 작년 세금 보고 1월 27일부터
- WSJ: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
- WSJ: 투자자들, 증시 회복 위해 회사 수익 상승 기대감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의 새 경제자문위원장 “20% 관세 필요하다”
- Bloomberg: 캐나다 총리 “트럼프 무역전쟁 시 보복관세 준비”
- CNBC: 트럼프와 공화당, '인플레이 감축법' 공격하기 힘들다

[오일]

- Bloomberg: 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중국 경제]

- NYT: 중국, 약 1조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 달성

[인공지능]

- Bloomberg: OpenAI, 중국과의 경쟁 강조
- Bloomberg: 미 정부, AI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신발 기업 스케쳐스, 차별화로 틈새시장 노린다
- WSJ: 룰루레몬, 4분기 이익 상향 조정
- WSJ: 2024년 BMW 판매량 감소... 기술적 문제와 중국 수요 약세 때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Lost 87,000 Factory Jobs in Otherwise Strong Labor Market

미 제조업 일자리 작년엔 8만7천개 사라져

- 미 제조업 일자리가 작년엔 8만7천개가 사라졌다. 2009년 대침체 이후 2020년 팬데믹 때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 많은 미국 업체들이 높은 차용 비용과 부진한 수출 시장 때문에 자본 투자를 제한시키면서 미 제조업이 약해졌다.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 활동 지수에 따르면 딱 한 달을 제외하고 지난 2년 내내 제조 활동이 위축되었다.
- 공급관리자협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제조 활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Business: The IRS will start accepting 2024 federal tax returns on January 27

연방 국세청, 작년 세금 보고 1월 27일부터

- 연방 국세청이 작년 소득세 보고와 처리를 오는 1월 27일부터 시작한다.
- 마감은 4월 15일이다. 그러나 허리케인 등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의 거주자와 업체들은 세금 보고가 연장될 수 있다.
- 자세한 안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rs.gov/newsroom/around-the-nation>

CNNBusiness 기사

WSJ: Why Bond Yields Are Surg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

- 정부 국채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증시와 부채 지역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고,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차용 비용에 부담을 받고 있다.
- 미국이 최근 국채 매도세를 이끌었다. 작년 10월에 경기 침체를 일축하는 강한 일자리 발표로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연준의 올해 금리 횡수 축소 때문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은 강한 경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회사 수익을 지원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에게겐 좋은 소식이다.
- 그러나 높은 금리는 향후 금리와 인플레이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또한 연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가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기존 국채 가치에 부담을 주게 된다.
- 그리고 이미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연방 부채가 심각하게 높다. 국채 금리 인상이 높으면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정부의 부채는 더 커지게 된다.

WSJ 기사

WSJ: Investors Hope Earnings Season Can Revive Faltering Stock Rally 투자자들, 증시 회복 위해 회사 수익 상승 기대감

- 미 대선 후 증시 랠리가 주춤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되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어닝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
-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대선 이후 모든 상승분을 반납해 지난 11월 5일보다 0.7% 줄었다. 트럼프 대선의 최대 수혜주로 예상됐던 러셀 2000지수는 작년 11월 하반기 최고치에서 10% 떨어졌다.
- 지난주 금요일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있으며, 주식도 압박을 받고 있다. 금리가 낮아야 경제도 성장하고 국채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 주식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Trump's New Economist Makes the Case for 20% Tariffs 트럼프의 새 경제자문위원장 "20% 관세 필요하다"

-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Stephen Miran은 "미국의 현재 관세는 2%이다. 관세가 평균 20%, 높게는 50%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관세 말고도 달러 약세를 위한 국제적인 관여를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긴장이 달러 강세, 광범위한 무역 적자,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장기적인 글로벌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WSJ 기사

Bloomberg: Canada Has Counter-Tariffs Ready If Trump Launches Trade War, Trudeau Says 캐나다 총리 "트럼프 무역전쟁 시 보복관세 준비"

- 캐나다 총리인 Justin Trudeau는 트럼프가 북미 지역에 무역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는 이를 보복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그는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캐나다에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캐나다는 작년에 첫 11개월 동안 미국을 상대로 3천2백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CNBC: Why Trump and GOP attacks on IRA can't score a clean sweep in red states**트럼프와 공화당, '인플레이션법' 공격하기 힘들다**

-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일자리가 주도하는 클린 에너지 노동 시장은 미국 전체 일자리수 1억6천만 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 하지만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공화당 우세주와 경합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플레이션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세주에서 기술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법을 완전 폐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오일]**Bloomberg: Oil Hits Five-Month High as US Sanctions on Russia Menace Supply****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 미국이 세계 최고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금요일 4% 가까이 급등해 배럴당 81달러에 근접했었다.
- 미국은 러시아의 대형 수출업체, 보험사, 150개 이상의 유조선을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와 중국 같은 주요 석유 수입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할 위기에 빠졌다.
- 올해 초 러시아 제재 외에도 추운 날씨, 미 원유 비축량 감소, 트럼프의 이란 원유 수출 규제 강화 예고 등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NYT: China's Trade Surplus Reaches a Record of Nearly \$1 Trillion****중국, 약 1조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 달성**

- 오늘 월요일, 중국은 2024년 수출액이 3.58조 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2.59조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즉, 중국은 2024년 9천9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래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글로벌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다.
- 중국 공장에서 쏟아지는 상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상대국들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가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예고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작년에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 브라질,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제조업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NYT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OpenAI Emphasizes China Competition in Pitch to a New Washington OpenAI, 중국과의 경쟁 강조

- OpenAI가 워싱턴에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기 위해 에너지 및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것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 OpenAI는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한 AI 경제 특별 구역을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과 글로벌 AI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의 '독재적 AI'에 대비되는 '민주적 AI'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OpenAI 글로벌 업무 담당 부사장 Chris Lehane은 몇 달 안에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에서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ehane은 “트럼프는 국가 안보 때문에 AI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Open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ite House Unveils New Curbs on Exporting Nvidia AI Chips 미 정부, AI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 미 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체들의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 해당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 규모에 상한선을 결정한다. 또한 규제를 받는 국가가 보안 및 인권 기준에 동의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는 해당 규제에 대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20일이라는 매우 긴 의견 제출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 Raimondo는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해 섬세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국의 AI 칩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AI 칩 수출 통제는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kechers Went After the Customers Nike Didn't. It Paid Off.

신발 기업 스케쳐스, 차별화로 틈새시장 노린다

- 스케쳐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큰 신발 회사가 됐다. 스케쳐스는 2026년까지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케쳐스는 나이키 같은 경쟁업체들이 무시하는 틈새시장을 노렸다.
- 나이키는 스포츠 슈퍼스타를 섭외하고, Hoka 같은 기업은 기술력을 이용해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 반면, 스케쳐스는 간단히 걷기 좋은 신발을 원하는 은퇴 노인이나 자녀를 위해 저렴한 제품을 찾는 가족을 공략했다. 스케쳐스의 아동용 신발 가격은 50달러 정도다. 스케쳐스 경영진들은 편안하고 저렴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스케쳐스 재무 책임자 John Vandemore은 “다른 대형 브랜드와는 정반대다. 우리는 서로 다른 플레이어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Lululemon Raises 4Q Revenue, Profit Targets

룰루레몬, 4분기 이익 상향 조정

- 스포츠 의류 회사인 룰루레몬이 크리스마스와 휴가 기간 동안 매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이익이 34억8천만~35억1천만 달러 정

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보다 11%~12% 정도 성장한 수치다.

-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상향 조정됐다. 이전 가이드스 범위였던 주당 5.56~5.64달러에서 5.81~5.85달러까지 범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주당 5.66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WSJ: BMW Sales Fell in 2024 on Technical Issues, Weak China Demand
2024년 BMW 판매량 감소... 기술적 문제와 중국 수요 약세 때문

- BMW가 기술적 문제와 중국 수요 약세 때문에 2024년 판매량이 4% 감소한 245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BMW는 2024년 하반기 차량 제동 시스템 문제 때문에 150만 대 이상의 차량 인도를 중단했었다. 또한 중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와의 경쟁 때문에 수요와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BMW 판매는 13.4% 감소했다.
- 그러나 BMW 전기차의 경우 2024년 판매량이 13.5% 성장했다. BMW 이사회 멤버인 Jechen Goller는 “BMW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기차는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르는 국채금리...시장 '발작' 우려
10년물 국채 금리 4.78%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때도 전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 '발작'(tantrum)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온 미국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